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학승이 물었다. "조의(祖意)와 교의(教意)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의를 알게 되면 교의도 알게 돼."

問 祖意與教意同別 師云 會得祖意便會教意

조사의 뜻과 부처의 뜻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 답자는 조주 선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본 답자라면 "조사는 부처를 모르고 부처는 조사를 모른다네." 하고 대답하겠다. 본 답자의 대답이 조주 선사와 더불어 뜻이 같은가? 다른가?

학승이 물었다. "이류중행(異類中行)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음 부림(bhūrim). 음 부림."

問 如何是異類中行 師云 庵 部林 庵 部林

이류중행이란 전혀 다른 무리 속에서 행(行)하는 것을 말한다. 반잡한 사바 속에 살면서도 수행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 진언이나 화두, 아니면 염불 수행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스스로 산봉우리 정상에 주하고 있네."

학승이 물었다. "조계로 가는 길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조계로(曹溪路)는 악로(惡路)야."

학승이 물었다. "지금 어찌 도달하지 못합니까?" 조주 스님은 말했다. "그것은 높고 험준하기 때문이야."

問 高峻難上時如何 師云 老僧自住峰頂 云爭奈曹溪路 側何 師云 曹溪是惡 云今時 爲什麼不到 師云 是渠高峻

어찌하여 조주 선사는 스스로 정상에 도착해있는가?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조주 선사가 신발도 닳은 바 없이 정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곳에 본 답자도 숨소리 한 번도 거칠게 쉬지 않고 도착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악로(惡路)는 길이 나쁘다는 의미이다. 순로(順路)라면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가 도착하면 된다. 그러나 악로는 길이 험하여 미끄러지기도 하고, 길이 끊어져서 있는 듯 마는 듯도 하고, 신작로를 만나 순탄한 듯 하다가 사도로 빠지기도 한다. 가는 도중에 만나는 길 안내자 선지식들의 가리킴도 일정하지 않다. 화두를 들라하다가, 묵언하라하다가, 방을 들어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놀라게도 한다. 그 가리킴이 난폭하여 어린 사미의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문지방에 발목을 내밀게 한 후 문을 받아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순피선(口脣皮禪)을 하는 선사들의 설법도 이렇다저했다. 부처라

고 했다가 부처가 아니라고 하고, 깨달음이 있다가 하다가 깨달음이 없다고도 하니,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같 등하고 재신심 내기를 여러 번, 그렇게 세월을 보내어서 결국 조계로 끝에 당도하게 되면 비로소 모든 선사들의 가리킴이 하나에 귀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손가락이 5 개이나 모두 손바닥에 모여듯이 천 가지 만 가지 설법은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는 무엇일까?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66번을 넘어져도 모르는 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보배로운 달이 중천에 걸려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 귀를 막고 말았어."

問 如何是寶月當空 師云 塞卻老僧耳

보배로운 달이 중천에 걸려있다[寶月當空]는 것은 항상 일심과 평정을 잃지 않고 자동으로 중심이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소위 동정일여니 몽중일여니 하는 경계를 얻은 것인데, 이 경계에 들어가려면 피눈물 나는 수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사 이런 경계에 들어갔다해도 스승에게 그 경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스승의 귀를 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인가? 선사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가? 이유를 모르는 것 자체가 그 이유이다. 선사를 만난 후 마음이 답답하거든 얼른 두꺼비에게 큰 소리로 물어보라. 거기서 틀림없이 깨달음 분이 있을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40



어떤 존귀한 수행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샳된 삶을 산다

(절리아숫타(Jāliyasutta))

여기 섬(島)이 있다. 섬은 고독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섬에게도 바다가 있지 않는가. 또 육지와와 왕래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섬과 그 섬을 둘러싼 환경(사회)과의 관계로 출가의 교단을 설명한 것은 사사키 시즈카(佐々木 暲) 교수다.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원영 스님 옮김, 민족사에서이다. 섬은 그를 둘러싼 바다나 육지의 지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승가 역시 사회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승가라는 하나의 '섬'을 사회로 만들어 주는 것, 마치 섬을 지지해 주는 바다나 육지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밥'이다.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이다. '밥'을 통해서 승가와 사회가, 출가자와 재가자가 서로 연결된다.

신자들은 음식을 보시한다. 음식을 보시하지 않는다면, 신자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다. 재가자, 즉 사회는 출가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행히 인도는, 그렇게 수행자들이나 유행자(遊行者)들에게 음식을 배부른 전통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곧 신이다"라는 말이 바라문교의 고전 우파니샤드에서 이미 설해졌다.

그럼 출가자들은 '밥'을 보시해주는 재가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법'이다. '법'을 잘 닦아서 얻은 뒤에, 그 '법'을 전해줘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정답을 말씀하시는 데 급하지 않으셨다. 그 이전에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想起)시킨다.

특히 <절리아숫타>는 많은 생활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늘 이 말씀에 그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

예컨대 "어떤 존귀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신자들이 보시한 음식을 향유하면서 이와 같이(----) 점술과 같은 저속한 지식으로 샳된 삶을 산다." (전재성, <디가니까야>, 한국불교학술원 협회. 원문의 '혹은'을 '어떤'으로 고침)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히 강박관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어야 할지 모르겠다. '법'을 추구하는 출가수행자들이지만, 정작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법'의 문제이다. '법'의 엄숙함을 잊고서는 '법'의 터득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생각해 보자. 세속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위해서 고투(苦闘)하고 있는가.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다시 결혼시키고, 자신의 노후대책까지 다 마련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인생사, 즉 가정기(家庭期,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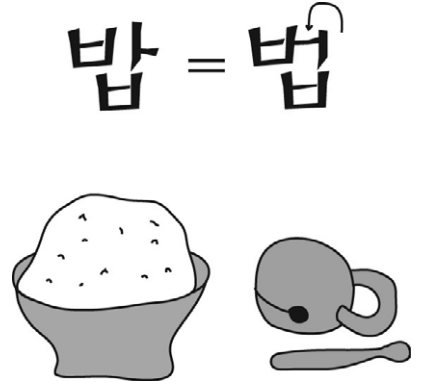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가자가 아닌 재가자의 시기)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우리는 한마디로 '밥'이라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어려운 '밥'인데, 그 '밥'을 출가자를 위해서 보시하였다. 때어놓았던 것이다. 그런 '밥'을 신도들로부터 그냥 얻어서 향유(享有)한다면, 출가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 아니겠는가. 물론 경전은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늘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신도들이 보시해 준 음식"의 무게는, 잊으면 잊을수록 무거워질 뿐이다. 다음 생애라도 다 갚아야 할 빚(債務)의 무게로 말이다. 파산신청이나 신용회복과 같은 탕감(蕩減)받은 길은 애당초 없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35>

업-2 업보윤회설(業報輪迴說)

선한행위에 대해서는 즐거움이라는 결과가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긴다는 자업자득의 윤리가 불교의 업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가는 경우도 있고, 악한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온갖 영화를 누리다 가는 경우도 많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친 인과관계(三世因果)로 설명하고 있다. 삼세인과의 가르침에 의하면 현재에 괴로움이 지속되는 것은 과거에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이고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누리는 부귀영화는 과거에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한 과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는 전생까지 포함시킨 과거를 말한다. 그리고 현재에 행한 행위는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선악의 업이 그 행위에 대한 과보가 이루어질 때까지 삼세에 걸쳐 존속하고, 그 과보에 의해 각각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의 세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업보윤회설이다. 이 여섯 세계[六道]중 지옥·아귀·축생을 3악취(惡趣)라 하고, 아수라·인간·천상을 3선취(善趣)라 한다. 인간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악취에, 선한 행위를 한자는 선취에 태어남으로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 것이다.

'뭍' 벗어나는 수행 출발점...삼세인과 윤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보설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사견(邪見)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견이란 선도 악도 선악의 과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견이 있는 한 사제설(四諦說)이나 연기설(緣起說)과 같은 불교의 독자적인 가르침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보윤회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 가능한 윤리의식이고 이러한 윤리의 식이아말로 부조리한 고(苦)의 세계에 대한 자각과 그 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수행의지의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업보윤회설을 절대적인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인도의 신분계급제도인 카스트(caste)가 기원전 1300년 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인도인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 현재의 삶과 계급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스트란 제사 종교 학문을 담당하는 바라문과 왕족이면서 군대 정치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평민 바이사, 노예계급인 수드라의 네 계급을 말한다. 이 중에 자신이 현세에 수드라 혹은 바이사

로 사는 것은 전생의 악업 때문이므로 현세에 자신의 계급 속에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면 내생에는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업보윤회설을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이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업설은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예컨대 심이연기설중 첫 번째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을 떨치지 못한 자는, 즉 연기에 대해 무지한 자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행(行), 즉 업의 잠재력 혹은 업에 의해 여섯 갈래의 세계[六道]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명을 떨친 자는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짓지 않게 되고 육도에도 윤회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육도에 윤회하며 집착과 고통속에 사는 중생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에는 반드시 책임과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업에 대한 과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노력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노력이란 다름 아닌 무명을 떨치고 사제와 연기법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다. 진리를 깨달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는 이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들이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경계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침니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금주 : 남궁성군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10월 10일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11월 10일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연수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교과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먼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모심인불교대학 집

제 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敎)와 기본교리(基本敎理)는 밀교사상(密敎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